



별 별 신 문



별별신문은 유흥업소 종사자를 위한 신문입니다. 노래방 도우미, 성매매집결지, 룸살롱, 단란주점, 키스방, 보도방, 티켓다방, 안마시술소 등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신문으로서, 여성들의 인권과 권리창안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별별신문 3호 발행일자: 2011년 10월 7일 금요일 발행인: 유흥업소 종사자를 위한 신문팀(짱, 달, 숨, 쌀, 용)

강남

은 서울의 대표적인 유흥업소 밀집지역이다.

특히 안마시술소, 출장마사지, 룸살롱, 오피스텔, 폴살롱 등 다양한 성매매 업소가 매일 밤 성업 중이다. 돈과 사람이 모이는 곳, 그래서 성공에 대한 열망이 어디보다 크게 느껴지는 곳, 강남. 그곳은 여성들에게 어떤 공간으로 기억되고 있을까? 성공에 대한 꿈과 화려함에 대한 동경이 뒤섞여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감당해야 하는 비범함의 무게도 만만치 않다. 이번 별별신문에서는 서울의 유흥업소 중심지인 강남에서 일하며 살아온 여성들의 이야기와 만나고자 한다.

취재를 위해 올해 초까지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20-30대 여성 네 명을 만났고, 강남구에서도 역삼역에서 강남역 사이, 역삼역에서 선릉역 사이에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돌아다녀 보았다.

왜 '강남' 일까?

강남은 다양한 유흥업소들이 몰려 있어서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가게가 많고,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들, 예를 들면 미용실, 의류렌탈샵이 밀집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목돈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에게 있어 비교적 높은 금액의 선불금 제공이 가능하다고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외모를 보는 현저히 까다로운 기준이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유흥업소 여성들이 강남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강남'이라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외모에 있어서는 인정을 받기 때문이다. 외모의 기준은 곧장 소득과 연결된다. 똑같은 시간을 일해도 외모의 조건과 기준에 따라 페이가 다르다. "똑같은 시간을 일해도 페이가 달라요. 페이가 다르면 자부심도 다르죠. 강북은 8만원이라고 하면 강남은 10만원. (...) 청기지역은 2차 나가도 20만원이면, 강남은 27만원 이러니까.."

소위 '손님의 질'도 다르다. "내가 놀러가면 썸 술집이 있고 비싼 술집이 있으면, 비싼 데 가면 아무렇게나 못할 거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는 다 그런 사람들만 올 것 같으니까, 나도 썸 데 가면 진상떨고 미친듯이 노는데, 비싼 데 가면 웬지 그러지 못할 것 같아. 나도 싸질 것 같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비싼 술집일수록 손님들이 점잖은 척하는 거죠.", "(가격이)싼 데 가면 손님이 아가씨를 터치하는 게 당연시되지만, 좀 비싼 데 가면 웬지 만지면 안 될 거 같고, 이런 거...", "클럽이나 이런 데는 만지기도 많이 만지고 엉덩이도 많이 만지지만, 텐프로 이런 데 가면, 뽀뽀하거나 가슴 만지거나 하면 '뽀뽀!' 이런 식으로 아가씨들이 그런 대응이 있어요."

강남에서 풍기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도 여성들이 '강남'을 선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연예인, 변호사, 주식전문가, 사업가들의 비즈니스 장소로서 유흥업소는, 그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있어도 치열한 비즈니스의 장소가 된다. 여성들은 강남의 100만원이 넘는 월세를 감당해야 하고, 미용실, 홀복 등 하루 꾸밈 비용만 10-20만원을 지출해야 할 뿐 아니라 때론 마담이나 스태프들, 그리고 손님에게도 고가의 선물도 안겨주어야 한다. 화려함과 고급스러움에 대한 동경이 투영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 된다.

그렇다고 모두가 강남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차별성 때문에 강남에서 일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많지만, 한편으로 그러기 위해서 반복적인 성형을 하거나 강남 유흥업소의 마담 귀에 들어갈만큼 외모가 출중하거나 업소 전무나 마담 등 지인을 잘 만나서 소위 '줄타기'를 잘 해야 강남으로의 진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텐프로는.



"내가 제일 잘 나가!" 성공의 대명사 - 텐프로!

텐프로는 가장 고급업소로 알려져 있다. 연예인 수준의 외모를 갖춘 여성들이 있고, 가장 비싼 술값을 내는 업소이며, 회원이 아니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도 하다. 남성들 사이에서도 텐프로 업소를 이용한 경험은 자랑삼아 회자될 정도로 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위 '텐아가씨'로 일하는 것은 어떨까. 운 좋게도 취재과정에서 텐프로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여성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보통 텐 같은 경우에는 점원에서 이쁘고 잘 나가는 애들 소식이 들려요. 누군지 자신들 사이에서, 가게에 가서 아가씨들을 보고 와요. 텐은 아가씨들이 나이가 좀 있거든요. 왜냐면 밑에서부터 쪽 올라왔기 때문에..." 텐프로는 외모로 여성을 평가하지만, 정작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중요한 것은 외모보다는 사람을 부리는 기술, 즉 '수완'이다. 손님과 단기적인 하룻밤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통해 저녁의 빚을 해결하거나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텐 아가씨들은 생각 자체가 '내가 이거 한번 모험을 하면', 손님한테 팩 선물도 안기고, 진짜 막 몇 백되는 그런 가격의 선물도 하구요(...)" (손님한테 선물해요?) 네. 그 언니들 말을 들어보면, 한번 들어앉으면 크게 들어앉는다 이 말이에요. 집도 갖고, 몇 억대에... 왜냐면 자기 빚이 있잖아요. 빚이 그 정도가 있으니까 그거를 없애주는 거죠."



이러한 수완은 손님에게 뿐만 아니라 마담과 업소 실장 등 스태프들과의 관계에서도 필요하다. 마담이나 전무, 부장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어떤 손님과 연결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손님과 텐아가씨 사이에서 일명 '뚜쟁이' 역할을 하는 마담의 입김이 무척 강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자기 빚이 8천이면, 가게측에서 손님한테 아가씨 빚이 1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류도 가짜로 해주고. 그러면 1억에 관해서는 아가씨가 인심 쓰는 척, 2천만원을 나눠줄 수도 있고. 자기 돈이 아니니까..." 이 과정을 "공사치기"라고 한다. "손님이 빚을 갚아주려고 하다가도 마담이 '그 빚을 왜 갚아주냐고,, 재 다른 남자가 있다, 여우다' 말 조금만 잘못해도, 사람이 거기서 잠깐 만났는데, 좋다고 해서 (아가씨만) 확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서 '재 착하다, 괜찮다' 이렇게 도와줘야 큰 빚을 탕감할 수 있잖아요." 아가씨를 모집, 조달하는 과정에서 마담은 업주보다 더 손님과 여성들 사이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텐프로 업소에서 마담이 없이는 손님도 가게를 드나들 수 없다. '텐아가씨'도 마담이 없이는 손님과 연결될 수 없다. 술값은 마담과 업주 각각 6:4 또는 7:3으로 마담의 수익이 더 높다. 그렇지만 이 모든 과정이 온전히 위험한 모험이 되기도 한다. 마담은 손님의 외상이나 진상 모두를 책임져야 하고, 자신이 데려온 아가씨들이 빚을 갚지 못하고 가게를 나갈 경우, 이 빚을 모두 책임져야 한다. 물론 마담은 법적으로 보호받기도 어렵다. 그러나 텐프로 업소에서 마담의 존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손님과 애인 사이

텐프로에서 손님과 여성은 하룻밤 성적서비스만으로 끝나는 관계는 아니다. 텐프로는 '2차'가 없다는 식으로도 알려져 있다. 관계를 맺는 방식이 일반 유흥업소와 다르기 때문이다. 한 사람과 장기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때문에 손님은 어느 순간 애인이 되기도 한다. 몇 천만원에서 1억이 넘는 빚까지 대신 빚을 갚아준 손님이 여성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같이 사는 거죠. (살림을 차려요?) 네. 어떻게 생각하냐면, 손님이 가정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그게 쉽다고 생각을 해요. 한 3개월이면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 3개월에서 6개월, 그 정도면 이 관계는 끝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죠. (...) (그 관계가 끝나면?) 또 나오죠. 그리고 더욱 웃긴 건 굳이 빚을 안 쳐도 되는 애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가게측에다가 돈을 땡기는 이유는 공사하기 위해서. 손님이 '넌 빚이 얼마냐' 당연히 물어요. 그러면 보통이 빚이 크잖아요. 빚이 작으면, 넌 사이즈가 그거 밖에 안 되냐? 라는 생각도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아가씨들 굳이 빚이 필요 없는데도, 땡기는 이유는, 땡겨서 가게측에다가 '나는 빚이 이 정도 있다'라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손님한테 얘기해서 몇 천이라도 통장에 돈을 가지고 있어도, 손님한테 일 부러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손님으로 만나고 3-6개월 사이에 끝나는 관계라고 해도 단지 "일로만" 만나게 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기도 하고, 보다 깊은 관계에 대한 갈망이 생기기도 한다. "(남자들은) 어차피 돈주고 가는 곳인데, 애도 괜찮았다가 재도 괜찮았다가 그러는데, 그러다보면 당사자들은 배신감이나 어떤 인간이기 때문에 속상하거나..." 이러한 문제로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손님과 애인사이를 오가며, 금전거래로 관계가 맺어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상대방에 의해 관계가 박탈될 수 있는 시스템이 챗바퀴처럼 굴러가고 있다.

2면으로 이어집니다. ➡

별별신문을 이용하세요~

별별신문은 유흥업소 소식, 성매매 관련 소식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유흥업소에서 겪으신 다양한 사연들을 보내주시거나 부조리한 사건들을 고발해 주십시오.

고발, 사연 보낼 곳
E-mail: eloom2003@naver.com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32-12 5층
"별별신문"담당자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게 주소나 직접 받기 편한 주소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별별신문이 발행될 때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1면에서 이어집니다.

화려하지만 때로는 송두리째 흔들리는 삶

여성들은 강남에서 일하는 것의 매력으로 하나같이 “화려한 생활”을 꿈는다. 그러나 여타의 인생들과 마찬가지로, 화려하다고 생각했던 삶 곳곳에 불안과 두려움도 숨어 있다. 인터뷰에 응해준 이들은 화려한 생활 뒤에 숨겨져 있는 나름의 고민들, 즉 벌어들이는 수입 보다 더 각종 명목으로 지출되는 돈, 유흥업소 채용시부터 생겨난 빚과 쌓이는 빚, 서비스직 중 특유의 감정노동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 손님·마담·가게스텝들·사채업자와의 역동적인 관계망들 속에서 일어나는 피폐함 등에 대해 털어놓기도 했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등록한 보건증과 원천징수 납부 확인 때문에 자신의 이력이 어디엔가 남게 되는 것에 대한 불안함, 다이어트약과 우울증 치료제, 수면제 등의 과다복용, 사회적 ‘정상성’에 대한 갈망과 좌절감, 자신의 몸이 언제나 누군가에 의해 터치되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한 몸의 기억들이 만들어내는 허탈함까지.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경험하는 복합적인 압박감은 때론 극단적으로 주변 동료들의 자살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서울에서 119구급차가 가장 많이 출동하는 곳이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많이 사는 논현동이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닐 것이다.



도약을 위한 선택지

다른 지역보다도 서울 강남, 강남에서도 ‘텐프로’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있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선택지였을 것이다. 그 선택지가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이라 해도 척박한 사회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기도 하다. 의외로 이들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방지법’은 이들 세계에서 그다지 힘을 발휘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성들은 성매매방지법은 그저 “단속이 뜨고 안 뜨고”의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경찰의 단속이나 수사외지만 없으면 별로 문제될 게 없어 보인다. 흥미로운 사실은, 빚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 또는 성매매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이 찾게 되는 탈출구 중 하나는 공교롭게도 성매매방지법에 기대는 방법이라는 점이다. 물론 빚이 너무 많아 도저히 국내에서는 감당하기 힘들 때 해외에 나가 일을 하는 것을 선택하는 여성들도 있다. “빚이 있는 사람은 거의 막장으로, 그냥 돈 쓰지 말고, 나 죽었다고 생각하자 그러면서, 짧은 시간 동안 2-3개월 동안 빚을 갚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해외로) 나가요.” 더구나 업주나 마담들이 해외에 많은 연결선을 가지고 있어서 해외로의 이동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성매매방지법에 기대거나 해외에 나가서 일하는 것 모두 당사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변화를 위한 실천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만큼 매우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기도 하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여전히 매우 차갑다. ‘불법’, ‘부도덕’, ‘난잡하고 돈 밖에 모르는’, ‘편하게 돈버는 사람’과 같은 수식어에서 비껴날 수는 없을까. 성매매 여성에 대한 문제적인 시선이 아니라 그들 입장에 대한 이해와 인정을 먼저 생각할 수는 없을까. 성공에 대한 갈망과 화려함에 대한 동경 뒤에 숨어 있는, 이들의 고통과 불안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이 담고 있는 문제적 사회의 단면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이성의 부재가 아쉽다.

(쌀)

서울에서 119구급차가 가장 많이 출동하는 곳이 어디인 줄 아세요?

전준희(화성 정신보건센터 센터장)

자살위기에 대한 긴급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엠블런스에 함께 탄 구조구급대원이 필자에게 말을 걸어온다. 이미 새벽시간이라 도로에는 차들이 한산한 상태이고 엠블런스는 경광 등을 켜지 않은 채 소방서로 향하고 있는 상태였다. 갑작스런 질문에 필자는 잠시 머리를 굴려 봤지만 딱히 아는 척을 하기엔 앞에 앉은 구조구급대원에 비해 일천한 경험인지라 입을 닫고 “글쎄요”라고 답을 했다. 이내 구급대원은 “○○동이 가장 많아요. 그곳에 소위 말하는 ‘나가요, 언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거든요. 주로 자살문제로 119가 출동하게 되죠”

그 일이 있었는지 며칠 후 필자는 ○○동에 인근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를 찾았다. 주로 119구조구급대가 응급한 환자를 데려가는 곳이다. 며칠 전에 구조구급대원에게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실제로 응급의료센터에 ‘나가요 언니’들이 오는지를 물었고 응급의학과 교수의 대답은 심각했다. 즉 얼마나 많은 수의 성매매 여성이 자살문제로 응급실을 찾는지는 자신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반복적인 자살시도로 응급실을 찾다가 결국엔 목숨을 잃는 경우를 봤다는 것이었다. 한번 자살을 시도했던 여성이 응급실에서 퇴원한 후에 다시 자살시도를 하게 되고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결국엔 목숨을 잃는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 성매매 여성의 자살실태를 조사한 자료는 현재까지는 없다. 하지만 중국과 미국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성매매 여성의 자살시도 비율이 3~4배가 높게 보고가 되고 있다. (Hong, Fang, & Zhao, 2007) 중국의 경우 성매매 여성 중 6개월 이내에 자살을 생각해 보거나 시도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14.2%가 응답하였다는 연구가 있었다. 이들이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는 충분히 돈을 벌 수 없어서, 원치 않은 임신, 경찰연행, 담배, 알코올, 인생의 불안, 성매매 사실을 가족이 알게 될까봐 겪는 스트레스, 안정적이지 않은 성적 파트너 등으로 보고했다. 홍콩의 경우엔 25.8%, 미국의 경우엔 72%의 직업여성들이 자살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직업여성의 5명 중 1명 이상이 최근에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성매매여성의 자살에 대한 사회적 시각은 개인의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의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고 본다. 사회가 그녀들을 자살로 내몬다는 것이다. 몇 가지로 정리해 본다. 첫 번째로 사회적 낙인감을 느끼는 것인데 성매매 여성들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이며 가장 비천한 직업으로 간주되어 있다. 이처럼 가장 취약한 우리 사회의 모습임에도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대부분의 경우에 가족과 친구 등의 의미있는 대인관계에서 단절을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로 인한 정서적인 어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정서적 어려움은 어린 시절 양육환경의 열악함과 그로 인한 방임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Bródy, Potterat, Muth, & Woodhouse, 2005)를 고려해 볼 때 오랜 기간에 걸친 악순환의 반복일 수 있다.

세 번째는 고통에 대한 학습된 무감각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자동차경주선수, 외과의사, 소방대원, 군인, 경찰 등의 직업군에서는 모두 어느 정도 상처에 대한 두려움에 무감각해진다. 즉 죽음에 대한 무감각을 갖추고 있으며 낮은 자살욕구로 위험이 상쇄되지 않는 한 이런 직업군에서는 자살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Thomas Joiner 2011). 성매매 여성의 경우에도 낮은 자존감과 주변 환경의 열악함 등이 고통에 대한 무감각을 초래하게 되고 이로 인해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쉽게 자살을 결심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성매매 여성들의 심각한 정서적 심리적 부분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과거에 일어난 학대 경험으로 인한 해결되지 않은 정서적 문제, 자기파괴적 행동은 우울증, 성격장애, 알코올문제 등에 노출되고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국가적인 차원의 대책마련도 시급하지만 우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도움을 요청(Help seeking)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주변사람들은 내 주변사람이 정서적 심리적 고통에 빠져 있다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전문가를 만나서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꾸준한 심리상담을 통한 전문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서적 심리적 문제가 어느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1577-0199와 같은 상담전화의 이용을 추천한다. 다음으로는 친구의 지지와 같은 주위사람의 지지가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불안정해지고 격렬해지는 상황에서 타인과의 관계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나며 아무것도 하기 싫고 고통스러울 때 술이나 약물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1-2시간 정도 주위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성매매 여성이 처한 심리적 환경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신뢰도 약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 받아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할 마음조차 먹지 못할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사회가 넉넉한 마음으로 직업여성을 바라보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손을 내밀지는 못할망정 자꾸 벼랑 쪽으로 몰아가는 것만 같은 행국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남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며칠 전에 보도된 2010년도 우리나라의 자살률 31.2명이다. 1만 5천명의 국민이 자살했다고 한다. 한 달에 1천 명이상이 죽는 것이다. 하루에 40명 이상, 34분마다 1명꼴이다. 지금 이순간에도 어디선가 삶을 마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적인 대책은 여전히 획기적이지 못하다. 국가적 대책의 가장 근간이 될 만한 통계에서부터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일반시민들의 자살에 대한 대책들은 어느 정도 수준일 것인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2011년 3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통과가 되었다. 이제 달라질 것을 기대해보자.



‘법’은 우리에게 ‘밥’을 주나

2011년 7월 대만 성매매 특구 허용
대만정부, '성매매특구' 허용, 사회질서유지법 개정, 특정구역 성매매 합법화

대만 행정원(중앙정부)은 성인들이 합법적으로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매춘지역인 '성매매특구'를 타이베이시(臺北)시 등 지방 정부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행정원은 14일 원회(院會)에서 '사회질서유지법'(社會秩序維護法) 개정안을 통과시켜 앞으로 대만에서는 성인들이 성매매 특구 내에서 처벌받지 않고 합법적으로 성매매를 할 수 있게 됐다.

성매매 특구 밖에서 매매춘을 하면 3만 대만달러(한화 약 120만원) 이하의 벌금, 특구 밖에서 성매매를 주선하거나 손님을 끌면 3일간 구류 또는 3만대만달러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2011/07/15

국가가 성매매를 합법화 하는 것은 많은 논란거리를 만드는데, 대만은 특구 허용에 대해 '성매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성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헌법재판소 격인 대만 사법원(司法院) 대법관회의는 성노동자들만 처벌하고 성구매자들은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한 일부 조항이 남녀평등 원칙에 위배되고 차별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대만의 성매매 정책이 어떻길래.

대만은 1994년부터 대대적인 퇴폐업소 단속을 실시했고 1997년 공창제 폐지 시행을 선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및 공무원들의 유착비리를 차단하고자 하는 움직임과 함께 성판매 여성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들을 실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작 성판매 여성들의 목소리는 달랐다. 이 과정에서 성매매 종사자들의 단속에 대한 반발과 성노동자 운동이 촉발된 것이다. 공창으로 등록되어 있던 수백 명의 여성이 갑자기 실직 상태가 되었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며,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현실에서 생존권 보장과 공창제 부활을 요구했다.

생존을 위해 일하는 성판매 여성들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 저항하는 성매매 합법화 운동은 2009년 성매매 금지주의를 사실상 포기하게 했고, 2년 후인 지금 성인간의 합의 성매매에 대해 허용하는 정책으로 변화하게 된다. (대법관회의는 2009년 11월 관련 조항의 2년 내 폐기를 선고했고, 이에 따라 일부 조항이 2011년 11월5일 이후 효력이 상실되어 특정구역 내 성매매 허용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 것이다. 이 판결로 그에 앞서 진행돼 오던 성매매 합법화, 성노동 특구 설치 등 논의가 더 활기차게 펼쳐졌고 그 결과가 성매매 특구로 이어졌다.)



“법”이 하는 일이 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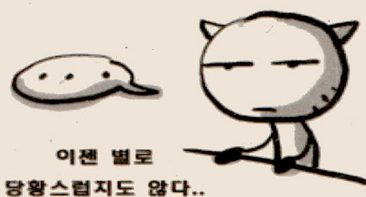
한국에서도 2004년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노동 운동을 통한 성매매 방지법 폐지 요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대만의 성매매 관련 정책은 그 과정에서 한국과 많이 닮아 있어서, 한국의 성매매 정책의 흐름을 읽어 낼 중요한 선례이기도 하다. 더불어 다른 나라의 경우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지주의를 표방하는 스웨덴, 일본, 중국과 비범죄주의인 프랑스, 호주도 있는가 하면 네덜란드, 독일 등은 합법이지만 규제주의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어떤 특정한 성매매 정책만으로 성매매가 사라지거나 여성인권 및 노동권이 보장될 거라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나 성상품화는 '성노동에 대한 합법화나 금지주의 정책'과 무관하게 급증하고 있는데도 눈에 보이는 특정 성매매 현상에 대해서만 정책 마련을 하고 있는 게 문제다.

“왜, 여성은 대부분의 경우 성적 매력을 기반으로 노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과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 되어야 좀더 평등한 정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성판매-비성판매 여성’들의 대립보다는 여성들의 공통 현실과 각각의 차이를 바탕으로 대화를 해야 여성의 목소리가 드러나지 않을까. 또 여성의 감정노동에 기대어 사는 남성들의 무임승차가 얼마나 짜질한지 제대로 비춰줘야 남성들도 발전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을까.

누가 누구를 위해 어떻게 법안을 마련하고 집행하는지에 대한 성찰이 없으면 금지주의와 합법화는 앞으로도 엇치락 뒤치락 하게 될 것이다. 사실 법은 그 자체 보다는 만드는 과정과 집행하는 과정이 문제이니깐.

(숨)



HEALING

화를 키우지 마세요!

화는 참으면 병이 된다

울화가 치민다! 화병은 울화병이라고 하며 억울한 감정을 발산하지 못한 채 쌓이고 쌓여서 생기는 병이다. 이는 신기하게도 한국에만 있는 병명이다.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것이고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한국적 정서가 화병을 만든다. 화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한데 사람들은 이러한 감정 자체를 부정하고 억누르고 억압하여 병을 만든다.

화병은 중년 여성의 병으로 알고 있다. 옛날 우리네 어머니 할머니 그 윗 대의 여성들의 삶을 보면 모진 일을 겪어도 참아 내는 게 생존의 방식이었다. 모진 시집살이를 참아내고,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병어리 냉가슴 앓듯 참아내고, 먹여 살려야 하는 자식들은 줄줄이 있고 가난과 싸우며 삶을 살아내기 위해 또 참아냈다. 사회는 여성들에게 인내와 희생을 강요하고 한국 여성들은 화병을 얻게 된다.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각박해지고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요즘은 중년 여성 뿐 아니라 남성들, 청소년들도 화병에 걸린다는 보고가 있다. 화병은 스트레스와 관련이 많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 속에서 밤낮으로 일을 하는 남성들과 학업적 스트레스와 대화가 단절되어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차단된 청소년들도 걸린다는 것이다.

화병 증상은 상체나 얼굴에 갑작스레 열이 달아오르고, 숨이 막히거나 가슴이 답답해지며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자주 느끼는 증상을 동반한다. 그리고 심장이 빨리 뛰고 가슴 가운데를 누르면 심하게 아프다. 이 증상을 잘 감지해야 한다. 화병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은데 만성이 되면 이는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된다.

화병을 예방하자!

화병을 단순히 스트레스로 생각하고 짜증을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화병을 방지하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화는 쌓아두면 안 된다. 적절하게 표출을 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중요하다. 화가 났다고 물건을 부순다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표출이 되면 화가 풀리는 게 아니라 미진하게 또 남아서 자신에게 쌓이게 된다. 화를 적절하게 표출하기 위해서는 내가 왜 화가 났는지에 대해 스스로 물어보고 또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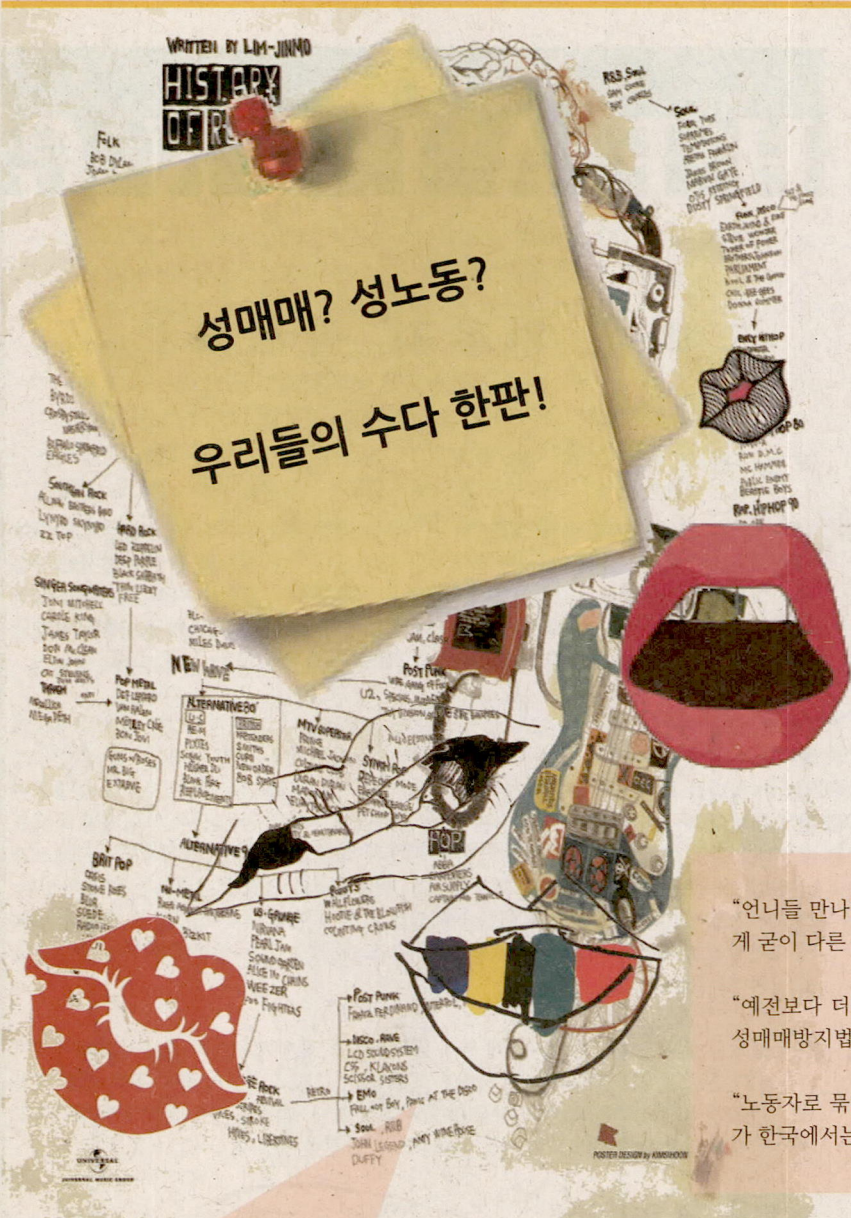
- ① 화를 유발했던 직접적인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적절한' 대화법으로 표현한다. 직접적으로 할 수 없다면 조용한 방에 앉아 상대가 앞에 있다는 생각을 하고 상상의 대화를 하는 것도 좋고 글로 적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 ② 자기만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만든다. 수도도 좋고 몸을 움직이는 등산이나 요가 댄스도 좋다. 그 화를 가슴으로 쌓이지 않게 털어버려라.
- ③ 호흡을 길게 천천히 하는 연습을 통해 이완한다. 화가 쌓이면 명치 부분에서 호흡이 걸리게 되고 호흡은 가빠지고 답답해진다. 긴 호흡을 통해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키고 막혀있던 가슴에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인다.
- ④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연습을 한다. 부정적인 생각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맞춰 행동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긴다. 그 고리를 끊어야 병이 생기지 않는다.

(달)

‘심리상담’을 연결해드립니다

마음이 힘들어서 공공 앓고 있는 언니들,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데도 잠을 잘 수 없어 괴로워하는 언니들,
답답함이 목까지 올라오지만 해소할 데 없어서 속앓이를 하고 있는 언니들,
무기력하고 자꾸 눈물만 나오는 언니들,
내가 누군지 알고 싶은 언니들 모두 모두~~~
심리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심리상담가를 연결해드립니다.

010.8230.6279로 연락하시거나 문자 남겨주세요.



“성매매 산업구조라든가 착취구조를 떼어놔서, 행위자에만 보는 게 좀 그렇긴 해요. 그치만 그것도 좀 짚어봐야지 않나. 막말로 자본주의에서 판매 안 되는 게 어디 있나? 가난한 자들은 안 파는 게 뭐가 있나? 왜 성은 못 파냐”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차피 대부분의 여성들이 하는 일이 여성성을 상품화해서 하는 일인데, 스튜어디스는 웃음을 팔고, 성매매 여성은 보기를 파니까 그게 다른 건가? 뭐가 다른 거지?”

“노동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합법화된다고 했을 때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갈까.”

“합법화에 대한 얘기가 계속 된다면, 그럼 청소년 성매매는? 나이가 어리다고 안 돼?”

“언니들 만나면서 자기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이것이 최선의 생계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게 굳이 다른 거를 얘기하는 게 폭력적이지 않나.”

“예전보다 더 피해자로서 여성을 조사하지 않으려는 경찰들의 태도나 이런 걸 보면 윤방법 때랑 똑같다. 성매매방지법이 왜, 누구를 위해 필요한 건가 지금 언니들한테 별로 적용되는 것 같지도 않고.”

“노동자로 묶이고 집단이 만들어졌을 때 그 권력이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너무 궁금하다. 그 모양새가 한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펼쳐질 수 있을까.”

“언니들이 안전하게 장사할 수 있게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한국사회의 노동자들이 힘이 있는가. 점점 더 자본이 세지고 노동자의 현실이 열악해지는데 과연 언니들한테 노동자라고 얘기했을 때 힘을 가질 수 있는가. 성판매 여성들이 무기로서 성판매를 안하겠다 파업을 한다한들 이 사회가 위협을 느낄까.”

“프라이드를 갖고 멋지게 사는 여성들 기꺼이 응원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하고는 요청에 의해서 도와주거나 이야기를 들어줄 지점이 늘 있었던 듯.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공간은 꼭 있어야 한다. 근절과 합법으로 인해 뭐가 싹 없어지거나, 딱 생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성판매 여성들의 행위만 성노동이 아니라 결혼해서 어머니의 역할, 애인관계에서, 성적 대상으로서의 행위 자체를 성노동이라고 개념화하더라. 가부장제 사회 구조에서 여성의 성적 행위성을 성노동이라는 개념으로 더 드러내서 여성들 간의 연대나 여성들의 행위성을 더 정치화하는 의미로서의 성노동의 개념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성매매 현장에서 여성들의 집단이 형성되면 좋겠고, 그 커뮤니티가 우리와 연결되고, 그런 소통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이 접근하면 좋겠다. 오히려 탈업한 여성들의 당사자성의 의미보다는 현장에 있는 여성들의 당사자성을 더 만났으면.”

(위 내용은 성매매피해지원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 성매매를 주제로 한판 수다를 떨다 특! 특! 터져 나온 말들입니다요! 수다는 수다일 뿐! 오해하지 말자! 정리 : 용)

경찰서 아웃리치 !!

“언니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경찰서를 찾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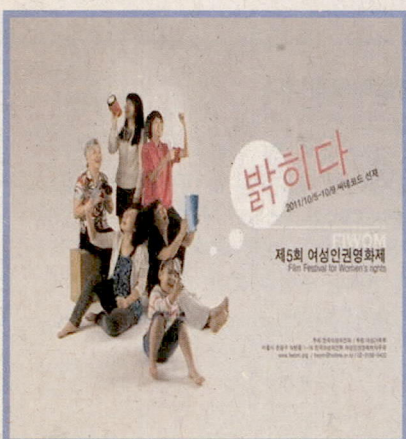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성매매방지법,
그것이 시행된 지 7년.

성매매 사건 수사에서 여성들은 법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보호받고 있을까.

수사기관은 여전히 성매매 여성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는지에만, 그리고 업주의 돈을 떼먹고 달아난 “사기꾼”이라는 혐의에만 잔뜩 날이 서 있다.

그래서 성매매방지법 7년이 지난 오늘도, 여성들의 인권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만 같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법을 없애기라도 해야 하는 걸까. 제대로 보호하지 않을 거라면, 멀리거려지거나 말게.)



한토막 정보

제5회 여성인권영화제가 다음달 5일부터 9일까지 서울 종로구 소격동 씨네코드 선제에서 열린다. 여성인권영화제는 한국여성의전화와 여성 폭력의 심각성을 고발하고 피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만든 행사로, 2006년 시작됐다. '밝히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여전히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일상과 투쟁의 나날들', '그대 마음과 만나, 피움' 등 세개의 고정 섹션과 특별 섹션(올해의 시선)인 '피움 줌 인', '피움 줌 아웃' 등을 통해 6개국에서 출품한 36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문의는 02-3156-5414.

